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24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성령충만 받아 증인된 사역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합니다!
5. 성경통독: 제 6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25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6/14(수) 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강해)
7. 오늘부터 다음세대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기도 바랍니다.
8. 감사: 오늘 맛있는 점심은 이승택 집사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9. 이사: 목사관이 Madison Manor Apt. C-103로 이사했습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1,613.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감 사: 김반석, 김민택 박윤정,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김민택 박윤정,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폭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24호 2023년 6월 11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조병기 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갈라디아서 5:16-18, 22-24 ... 다 같이
- 설 교 Sermon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1)” 조병우 목사
- 봉헌찬송 Hymn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새 벽 기 도 회

밤 8:00 (ZOOM)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병기 권사	조병우 목사	이승택 집사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유혜영 권사	박종님 전도사	다 같이	

< "화목하게 하는 직책" >

헨리 나우엔은 그의 저서 ‘돌아온 탕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걷는 중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의 역할을 한번씩은 해본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말 안 듣는 그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분개한 마음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은 형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자녀들이 화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처럼 됩니다.

나우엔은 다음과 같이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나이든 내 손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손을 고통 받는 모든 이에게 내밀고, 다가오는 모든 이의 어깨 위에 얹으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축복을 하라고 주셨음을 깨닫는다." 우리의 가족 이야기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고후 5:18-19). 지금 바로 그 일을 시작합시다.

Author Henri Nouwen, in his book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suggests that all Christians, at some point in their walk of faith, are represented by each of the three main characters. At times we are the wayward child in need of repentance and forgiveness. At other times we are the big brother who wants to hold on to resentment and withhold forgiveness. But as we mature, we become like the father, whose highest desire is to have all his children reconciled. Nouwen ends the book with these words: "As I look at my own aging hands, I know that they have been given to me to stretch out to all who suffer, to rest upon the shoulders of all who come, and to offer the blessing that emerges from the immensity of God's love."

What role are you playing in your family story? Do you need the courage to repent and seek forgiveness? Or do you need the compassion to extend forgiveness? God has given His children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2Cor.5:18-19). Now would be a good time to start.